

## 섬유소재 해설을 게재하면서

한국패션협회, 섬유기술사회 명예회장 공석봉

Textile + Apparel = Fashion이라고 한다. 물론 협의의 정의지만 Textile 업계에서는 이 개념만으로도 패션의 중요부분을 담당하는 입장이란 것을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전의 소재란 견, 모, 면, 마의 4종이었고, 그나마도 혼방이란 생각하지도 않던 때라 그 제품 영역은 단순했으나 비스코스, 아세테이트를 위시하여 3대 합성섬유가 섬유업계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혼방제품과 더불어 소재 영역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 소재업계와 의류업계와의 소통방식의 미숙으로 패션업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소재에의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물론 이런 것은 시스템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 나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본고에서는 어떤 새로운 소재가 패션계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 동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새로운 소재동향을 해설을 곁들여 소개할까 한다.♣

### □ 약력

- 서울대 공대 섬유공학과
- 미 미시건대 대학원 공업역학과
- 국제양모사무국(IWS)한국지부장
- 금강모방(주) 사장
- 한국패션협회 회장, 명예회장
- 중앙대 의류학과 겸임교수
- 한국섬유기술사의 회장, 명예회장
- 아시아 패션연합회 한국회장, 고문

### □ 저서

- 섬유패션소재 사전
- 한중일영 섬유 패션 용어 핸드북
- 소재를 알면 디자인이 보인다
- 알기 쉬운 양모제품 외 다수



공석봉(孔錫鵬)  
섬유기술사

## 소프트한 마 소재

원래 패션업계란 곳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를 추구하는 바람에 소재 메이커란 사람들이 해괴망측한 물건을 만들 때도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이탈리아와 이웃 일본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

“마”라고 하는 섬유는 그 까칠까칠한 맛으로 여름용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치를 역발상이라고나 할까, 부드러운 마 제품을 만들어내어 상업화한 기업이 있다.

최근에 일본의 편성물 전문업체(테라카사, 오사카 소재)에서는 특이한 여름용 마 소재를 개발하여 2012년 여름부터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마 제품 표면의 까칠까칠한 맛을 없애고 부드럽게 개질한 것이다. 이 소재는 “마”로 만든 것이지만, 피부에 직접 닿아도 이화감 없이 흡습성, 속건성, 세탁성에 견디는 특성을 갖도록 가공하고 있는데, 이 가공방법은 실 단계에서 마섬유의 한 올 한 올에 단백질을 코팅하여 성질을 개질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마섬유 특유의 까칠까칠한 촉감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섬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마섬유에 단백질을 코팅함으로서 마섬유 특유의 수분율(12%)은 그대로 높게 유지시키면서 보온성도 향상되고 강력도 증진되었다고 한다.

이제까지 피부에 닿는 감촉 문제로 외면하던 셔츠나 블라우스 또는 T-셔츠 등 내의류에의 적용이 주 용도가 된 것이다. 마 번수 60번수의 실을 사용하여 22게이지의 니트 제품으로 천을 만듦으로써 여성용에서 남성용까지 폭 넓은 상품 영역이 전개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통기성이나 속건성, 시원함 등 마섬유가 갖고 있는 우위성은 그대로 보전된 채 재래적인 마섬유에 비하여 착용감이 한결 부드럽고 고급감이 나는 획기적인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세탁기로 세탁하여도 줄어들지 않고 형태 안정성도 좋으며, 실에서의 가공이므로 그 효과는 반영구적이며, 선염이나 후염은 물론 나염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공석봉)